



## 안견(安堅)

안견(安堅)선생은 서산 지곡 출신으로 조선 초기 세종(1418~1450)시기에 활발히 활동한 화가이다. 본관은 지곡(池谷), 자는 가도(可度), 득수(得守), 호는 현동자(玄洞子), 주경(朱耕)이다.

1619년(광해군 11년)에 이조정랑 한여헌(韓汝賢)에 의하여 쓰여진 서산읍지 「호산록(湖山錄)」에 '본읍지곡인(本邑池谷人)' 이라고 기록되어 서산 지곡 출신임이 확인되고 있다.

안견의 작품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며 현존하는 작품은 현재까지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가 유일하며, 그 밖에 그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은 「적벽도(赤壁圖)」,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묵죽도(墨竹圖)」, 「산수도(山水圖)」 등이 있다.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는 안견(安堅)선생이 1447년(세종29)에 그린 산수화이다. 비단 바탕에 수묵담채로 그려졌으며, 크기는 세로 38.7cm, 가로 106.5cm이다. 현재 일본의 덴리대학(天理大學)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이 꿈속에서 본 무릉도원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완성한 몽유도원도는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안견의 독창성이 잘 나타나 있다.

보통의 두루마리 그림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왼쪽 하단부에서 오른쪽 상단부로 펼쳐지는 대각선 구조이다. 그리고 왼편 하단부의 현실 세계와 오른편의 꿈 속 세계, 넓은 복숭아밭과 기암절벽의 경관이 대조적이면서도 통일감이 있고 조화롭다. 왼편은 정면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표현하였으나, 오른편은 위에서 내려다본 부감법(俯瞰法)을 이용한 공간처리가 돋보인다.

그림 양쪽으로 안평대군의 제서(題書)와 발문, 그리고 시 한 수가 적혀 있고 신숙주, 정인지, 박팽년, 성삼문 등의 당대 문사(文士) 20여 명이 친필로 쓴 찬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몽유도원도는 회화사뿐만 아니라 문학사와 서예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

운두준법(雲頭皴法), 세형침수, 조광효과(照光效果)를 이용한 표현 등은 중국 화풍인 이과파 화풍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를 토대로 발전시킨 안견만의 독창적인 화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